

국내최대 '법화경' 사경...기네스 기록 도전

불교서예가 신열목 작가

대표적인 대승경전인 <법화경>을 전체 길이 600m의 국내 최대 규모로 사경(寫經)한 서예작품의 기네스북 등재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불교서예가 신열목 씨는 3년여에 걸쳐 <법화경> 7권 28품 전권을 전통방식으로 사경한 작품을 최근 완성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약칭한 <법화경>은 삼승(三乘)을 한데 모아 일승(一乘)의 큰 수레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정신을 담아 <회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을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불교작가로서 뭔가 의미 있는 작품을 남기고 싶다"고 열의를 세운 신 작가가 지난 2013년부터 공을 들인 이 사경 작품은 가로 140cm, 세로 70cm 크기의 삼나무로 만든 한지 1장에 한자와 한글 해석을 포함한 500여 자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한 삼마지 500여 장을 연결한 것이 두루마리 7권에 이르고 총 길이만 600m에 이른다. 전통 삼마지로 제작한 한글 해석 사경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현재 한국기네스북과 세계기네스북 등재를 추진 중이다.

신 작가는 "전통 삼마지를 재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교작가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승경전인 <법화경>을 다른 작가들이 하지 않는 전통방식으로 해석해 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면서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작업은 제쳐두고 오직 <법화경> 사경에만 매진하는 등 힘들고 긴 여정이었지만 완성하고 나니 불제자로서 환희심이 났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자 7만 자, 한글 23만 자 등 30만 자를 보

2014년부터 3년여에 걸쳐 삼나무 한지 500여장 연결 600m 이르는 사경집 완성

모든 작업 '전통방식' 고수 한자 등 30만자 담은 대작 "20년 작가인생 최대 역작"



불교서예가인 신열목 작가가 3년여에 걸쳐 <법화경>을 전통방식으로 전체 길이 600m 국내 최대 규모로 사경한 서예작품을 최근 완성해 주목된다. 왼쪽사진은 신 작가의 사경작품.

으로 직접 내려 쓴 대작이면서도 종이도 다펀다. 삼나무 한지에 민어부레 풀을 사용하는 등 전통방식을 고수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먹이 아닌 붉은 돌가루로 만들어진 경명주사를 사용했다. 그는 "처음부터 내 작가인생 최대 역작을 만들 원력을 세운 만큼 모든 작업은 옛 선조들의 방식 그대로 지켜려 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제작비만 1억여 원이 소요되는 등은 물론 종이 표면이 거칠어 작업에 적응하느라 더 많은



불교서예가인 신열목 작가가 3년여에 걸쳐 <법화경>을 전통방식으로 전체 길이 600m 국내 최대 규모로 사경한 서예작품을 최근 완성해 주목된다. 왼쪽사진은 신 작가의 사경작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불교와 인연을 이어온 신 작가는 사경 한 장을 마칠 때마다 108배를 올리는 등 불자로서 예의를 올리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하루에 짧게는 3시간, 길게는 9시간에 걸쳐 작업을 하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각 장을 마무리하고 108배 정진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국내 서단을 대표하는 원로 서예가 유천 이동의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은 신열목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충남미술대전, 신사임당 이울곡서예대전, 한국미술관 초대작가로 활동했다. 또한 경향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서회명인대전 우수상, 한일 인테리어 서예문인회 대전 초대작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천안 병천면주민자치센터와 백석대 평생교육원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재능을 나누고 '무로 가운 써주기'와 '자신 서예전' 등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등 자비 나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는 천안에 '송천서예연구소'를 마련해 후진양성과 서예 대중화에 나서고 있다. 신 작가는 "이번 사경작품을 사부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 오는 7월 제주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라며 "작품 활동은 물론 앞으로 가정교육은 물론 현대인들의 심신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예를 널리 알리는 데도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정철 기자 hic@ibulgyo.com

여시아문

이름 주소서

동생이 물어왔다. "언니, 아이 이름, 어느 게 좋아?" 동생은 시댁식구들이 철학원에서 받아왔더라 내게 감명서를 보냈다. 고려대 중문학을 한다는 언니가 뭐가 아는 게 싶어 내민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그랬더니 시집도 안 가고 종일 옛날 글만 파고 있는 사람이 조카 일에 한마디 해주지 않는다고 툭에 있었다. 예라, 모르겠다, 나는 뜻풀이나 해주었다. 동생은 감명서에 버젓이 다 나와 있는데도,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동생네가 고민하는 이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평범한 이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기 드문 이름이었다. 나는 말을 돌려 어른들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평범한 이름을 택했다고 했다. 나는 어른들의 의견에 따라라고 했다.

2015년 마지막 날, 제부는 동사무소에 갔다. 아이를 호적에 올리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처형, 진짜 처형 의견은 뭐예요?" 나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나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자 기네는 그럴 수 없다. 절에 다닐때, 공을 쌓내 하면서 온갖 탈속적 분위기를 풍기던 사람이 분명 뭔가 알아도 있다고 했다. 정말이지 나도 내가 뭐가 알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정작 동생네가 원하는 건 내 의견이 아니었다. 자기네들의 지원금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제부의 뜻을 존중해요"라고 고만 했다.

새해가 되어서도, 동생네는 아직도 "애기야, 애기야"라고 했다. 이름이 아직 입에 붙지 않았다. 집안 어른들만 좋아라, 언니 아이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 "아무래도 어른들의 뜻을 따라야 할 것 같아서요. 저 할 아직 어리니까요." 제부는 호기롭게 웃었다. 아이 이름으로 몇날 며칠을 머리를 싸맸을 부부, 나는 진즉 노자의 말을 들려줄 걸 그랬나. '도가 낳고 덕이 기른다(道之, 德畜之)'고.

사람으로 태어나, 이름 불리는 것만큼 다른 짐승과 다른 것도 없다. 이름 하나 갖는 게 특권이든 특권이요, 좋은 이름이면 더없이 좋았다. 그러나 더 위대한 건, 좋은 부모 밑에서 한 평생 살아가는 것이리라. 나는 그저 세상이치인 '도'를 따라서 '덕'을 쌓는 아이, 딱 그만이면 싶다. 이름도 성도 필요 없어 '존제', 그 자체로만 불리길 바라는 구도자들, 눈이 내린다. 절 마당에 발자국, 지워져간다.

김희원 시인



발해, 고려시대 유물 한자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새해를 맞아 불교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상설전시관인 '발해·고려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전시개편은 개성 만원대에서 출토된 무늬벽돌 등 최신 발굴성과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우리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발해실은 남북국시대 한 축이었던 발해왕조의 정통성, 수도·왕권·통치, 해상성국 발해와 주변세계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고려실은 시기를 기준으로 2개 공간으로 구분했다. 고려 1실에서는 송악(현 개성) 출신의 왕건이 지방 호족세력들을 규합해 918년 건국한 고려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 2실에서는 무신정권 이후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고려의 지방 문화의 분위기



새롭게 단장한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2실 모습.

를 잘 전달해주고 있는 '철조아미타불'과 고려인들의 불교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불화인 '수월관음도', 조선건국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이성계 발원 사리구' 등 다양한 성보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금속활자인쇄와 목판인쇄 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영산도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유물을 만나볼 수 있는 발해실과 고려실 개편으로 관람객들이 우리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철 기자

'원숭이' 의미 재조명 한다 부산박물관 심이지 특별전

부산박물관은 2016년 원숭이해를 맞아 오는 3월27일까지 박물관 2층 서로비에서 특별전 '뛰어난 재주와 어머니의 마음, 원숭이'를 연다.

지난 2007년부터 돼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을 주제로 '띠 전시'를 열고 있는 박물관이 올해로 10번째로 마련한 특별전으로 심이지 동물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새해의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시무형문화재 제20호 목조각장 이자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인 청원스님이 경주 흥덕왕릉의 심이지를 모각한 '원숭이 신상'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박물관 관계자는 "심이지 동물 중 인간



청원스님 작 '심이지 신 원숭이 신상'.

과 가장 많이 닮은 원숭이는 만능 재주꾼으로,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왔고 새해를 아끼는 어미 원숭이의 애끓는 모성은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斷腸)의 고사를 낳기도 했다"며 "이처럼 원숭이의 다양한 의미를 조명하는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ic@ibulgyo.com

www.arimtec.co.kr

정성을 다해 밝히는 촛불!

안전한 도구로 불을 켜세요.

소화기가 달린 그리닉스® 촛불진용점화기

- AGM-8828CD 종교의례용(상단용) ₩35,000 (전장 : 47cm)
- AGM-8824CD 종교의례용(가정용) ₩30,000 (전장 : 36cm)
- AGM-8822CD 종교의례용(가정용) ₩20,000 (전장 : 31.5cm)
- AGM-8870CD 종교의례용(상단용) ₩92,500 (전장 : 92.5cm)

정화 소화

한국산업발명연구원(원) 한국산업발명연구원(A05-1100-7002A) (의정부) 031-906-798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삼성동) 02-3463-788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삼성동) 02-3463-7888

아림전기 SINCE 197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신로 138 (백석동) 일신테크노타워 907, 908호 문의 031)906-7981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불학기

인테리어부문 최초 자격증 풍수인테리어지도사 자격증과정 수강생모집

인간은 그 영역에 있으며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응용 발전시켜 공간의 배치, 개념의 제시, 이미지선정 구조선정, 실례의 소개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의 조화, 성취방법 등의 환경개운학(環境開運學)이 즉 환경(空玄) 기(氣)풍수 인테리어이다.

▶**접수기간** 2016년 2월 초~**개강 전까지**
▶**교육기간** 2016. 3. 8 ~ 6. 14(15주)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18:30~21:30
▶**개강일시** 2016년 3월 8일(화) 18:30
※첫 강의 개강은 공개강의로 진행됩니다.
※수강시 이수 후 7월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부여

▶**인테리어와 팔괘풍수(20시간)**
· 색상과 팔괘
· 풍수 인성
· 풍수 인테리어 기본원리
· 인테리어와 환경풍수법
· 팔괘구성과 인테리어 응용

▶**풍수인테리어구성(20시간)**
· 풍수인테리어 구성요소
· 풍수 인테리어 구조배치
· 풍수 기구배치 인테리어
· 시공법 공부용 청실 인테리어구성

▶**양택풍수인테리어(30시간)**
· 집의 형태와 구조
· 다양한 기운의 판별법
· 주택풍수 인테리어
· 가계 부업 풍수인테리어
· 벽과 기운의 배치 색상 인테리어

· 방의 구조와 조명 인테리어
· 용의 지맥과 터장기

▶**풍수심리인테리어(10시간)**
· 풍수 인테리어와 심리관계
· 환경심리의 영향 인테리어
· 방위 심리와 인테리어
· 풍수인테리어 심리효과 개발

▶**이파트풍수인테리어(10시간)**
· 아파트 배치구조 판단 풍수법
·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풍수
· 아파트 실내조경 인테리어

▶**현장실습(40시간)**
· 1학기-4회(1회 5시간)->20시간
· 2학기-4회(1회 5시간)->20시간
· 현장실습

▶**교육대상**
임상심리학적 전문종사자, 대체의학전문가 및 희망자, 의사, 간호사, 상담가, 각종치료 상담가, 재활센터, 사회복지사실사, 종교기관, 기업체, 교도소 교정업무, 심리간담서비스기관, 심리치료상담, 심리 재활, 심리교육, 심리지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종사자, 경력마사지사, 발반사요법, 체육관리사, 치유사, 명상 기수련 회원, 참선, 도인법, 잠재의식 개발, 자아성찰, 기타 등등 심신수련에 관심 있는 분.

▶**향후전망**
정신보건법의 제정 및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재활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사설심리상담소, 교도소 및 소년원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임상 심리나 대체의학 관련 직종 프로그램운용 종합 병원 대학병원, 정신의학상담 임상심리사 고소득보장, 명상치유 명상심리 효과기대, 재활전문 인력을 양성 명상적 심리와 치유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02.2260.3728~30
홈페이지 edulife.dongguk.edu / 카페 cafe.daum.net/mbamb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불학기

명상심리지도사 자격증과정 수강생 모집 (冥想)

명상심리란? 명상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심리를 공부하는 새로운 장르의 수행체계공부이다. 인간 심신의 안정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고도의 "마음 치유법" 자연치유 능력 활성을 돕는 놀라운 건강법 소개

▶**모집인원** 30명 ▶**수료증발급기준** 2학기(1년과정)
▶**교육대상** 자격 제한 없음(일반인, 본교 및 타교 재학생 수강 가능) ▶**수강신청** · 인터넷 · 전화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16년 2월 초~**개강 전까지** · 교육기간 · 방문접수 : 09:00~17:00(공휴일 제외)
주 간 반(수) 3.2~6.8(15주) 14:00~16:40 ▶**등록**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동국대평생교육원)
야 간 반(월) 3.7~6.13(15주) 18:30~21:00 ▶**문의처** 팩스 02)2260-8976
스님특강반(수) 3.7~6.13(15주) 18:30~21:00 E-mail : dgus@dongguk.edu
※첫 강의 개강은 공개강의로 진행됩니다.

▶**강의내용**
① 명상 - 명상의 개념 원리 마음 이해 등을 공부
② 명상심리 - 명상심리의 이론 명상적 생활의 적용, 자정행상 윤리 관행 명상법
③ 명상심리치유 - 명상심리치유 원리 이론명상 사이 멘트 심리치유 이미지트레이닝 스트레스와 심리
④ 명상심리치유와 호흡 - 생명의 숨, 숨의 원리, 호흡과 심리관계 몸과 마음의 호흡법
⑤ 계수탈트와 심리치료 - 계수탈트 심리치료 이론적 배경, 계수탈트 심리치료법과 특징 집단치료법
⑥ 명상심리치유실습 - 초자아심리치유, 자아치유 프로그램, 명상심리치유 6단계

▶**교육대상**
임상심리학적 전문종사자, 대체의학전문가 및 희망자, 의사, 간호사, 상담가, 각종치료 상담가, 재활센터, 사회복지사실사, 종교기관, 기업체, 교도소 교정업무, 심리간담서비스기관, 심리치료상담, 심리 재활, 심리교육, 심리지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종사자, 경력마사지사, 발반사요법, 체육관리사, 치유사, 명상 기수련 회원, 참선, 도인법, 잠재의식 개발, 자아성찰, 기타 등등 심신수련에 관심 있는 분.

▶**향후전망**
정신보건법의 제정 및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재활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사설심리상담소, 교도소 및 소년원 기타 청소년 보호시설 임상 심리나 대체의학 관련 직종 프로그램운용 종합 병원 대학병원, 정신의학상담 임상심리사 고소득보장, 명상치유 명상심리 효과기대, 재활전문 인력을 양성 명상적 심리와 치유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02.2260.3728~30
홈페이지 edulife.dongguk.edu / 카페 cafe.daum.net/mbamb